

25.04.21.(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김대경 보좌관(민병덕 의원실)02-784-9540

부실경영책임, 입점점주들에게 전가하지 마라!

2025년 4월 21일 (월) 14: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3월4일 사모펀드 MBK는 홈플러스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2015년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LBO 방식으로 무리하게 차입한 이후 이에 대한 이자비용 감당 때문에 홈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다. 그동안 자산매각과 점포 폐점 방식으로 자금 충당을 해오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채무 변제가 유예되고 탕감도 가능해짐으로써 살길이 생겼다. 그에 반해 홈플러스에서 생계를 유지해 가던 10만여 직원, 노동자, 입점점주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뺏기는 날벼락을 맞게 된다.

특히 8,600여 입점점주들은 이미 전부터 자산 매각, 점포 폐점 등 흉흉한 소문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 매출 하락의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들이닥친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소식은 점주들에겐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홈플러스 입점하기까지 수억씩 투자한 점주들은 고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 격감은 물론 최악엔 어떤 보호 대책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되는 위기에 처해 버렸다.

망연자실한 입점점주들은 신속히 입점점주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병국)를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의원)에 도움을 청하여 3월9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간 다섯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점주들의 요구 중 1,2월 매출대금만 즉시 입금해주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현재까지 “최귀에 경읽기”였고 오히려 6월 중 회생승인 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사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흐르는 시간은 기업 편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하는 점주들은 하루하루 갈수록 피해액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죽을 지경인 점주들한테 홈플러스측은 사과와 책임보상 약속은 고사하고 적반하장 격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개인 포스로 변경한 점주

들에게 매출액 전액을 즉시 입금하라는 압박과 함께 평균수수료 12개월치의 보증금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책임은 약탈적인 MBK사모펀드와 홈플러스측이니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그 손실을 입점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는 홈플러스 본사는 “사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본사와 상생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본사는 여전히 점주들을 “을”취급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입점점주피해대책협의회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생각하고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와 함께 구조조정과 소상 공인 희생없는 홈플러스의 온전한 회생 방안 수립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 모든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삼성 이재용이 아닌 MBK 김병주 회장이라는 사실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 김병주회장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본인이 약속한 1조원 사재출연을 지키기는커녕 손 놓고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홈플러스는 본사의 손실분을 만만한 점주들한테 만회하려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입점점주들은 이런 비윤리적인 기업의 반사회적인 행태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며 홈플러스의 경영정상화와 책임 있는 보호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요구사항>

1. MBK 김병주 회장은 약속한 1조원 사재출연을 당장 시행하라!
2. 안정적인 경영 보장을 위한 입점점주 보호대책 즉각 수립하라!
3. 매월 총 매출금 현금 입금, 12개월분 보증금 납부 강요 등 후 정산 점주들에 대한 압박을 당장 중단하라!
4. 회생법원 결정 시까지 최소보장임대료(하이브리드) 적용 중단하라!

[행사개요]

일시 · 장소 : 4월 21일(월).14: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소개발언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연대발언 : 오세희, 이강일, 김남근, 김현정, 김문수, 정진욱 국회의원

발언1 : 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김병국 회장

발언2 : 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강경모 부회장

발언3 : 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정호인 총무

발언4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